

## 100시간만 멈춰 주세요...광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능 맞춰 3~6일 4일간 2단계

유흥주점·콜라텍 집합금지

초중고교 11일까지

등교인원 3분의 1로 제한

6일 하향·연장 여부 다시 논의

광주시가 변화가 등에 인파가 복직할 수 밖에 없는 수능 시즌을 맞아 나흘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하고, 시민들에게 '100시간 일상 멈춤'을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자치단체는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광역 4곳과 기초 14곳 등으로, 4일간만 적용하는 이른바 '핀셋형 격상'은 광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정회국 광주시 교육감, 5개 구청장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3일 0시부터 6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특히 수능 시험 후 수험생들이 대거 변화가 등으로 나오면 지역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이 시점에서 감염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자체적인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 지침을 반영한 10가지 방역 수칙을 시행한다. 집합행사

시 100인 이상은 모임 수 없으며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방문판매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도 밤 9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하고, 음식섭취를 할 수 없다.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격렬한 집단운동(GX)류와 아파트 헬스장은 아예 운영을 할 수 없다. 생활체육 동호회나 집단 체육활동 등도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만 가능하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이 금지된다. 광주지역 초·중·고교는 2단계 격상을 반영해 3일부터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원격수업을 한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광주공동체 안전을 위해 4일간 참고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100시간은 모임과 외출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확진자 없는 '3무(無)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적용 기간이 끝나는 6일 하향 또는 연장 등 방역 단계를 다시 논의한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는 확진자 3명이 추가돼 누적 731명을, 전남은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누적 427명을 기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광주 북구 광주 제일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3학년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오늘 수능...한파에 '코로나' 환기, 따뜻하게 입으세요

광주·전남 3만 586명 응시

찬바람 불고 아침 최저 0도

시험장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광주·전남에서 3일 사상 첫 '코로나 수능'이 치러진다.

광주는 41개 시험장, 898개 시험실에서, 전남은 56개 시험장, 811개 시험실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일반 수험생 기준) 치러진다.

〈관련기사 6·7면〉

올해 수능날은 한파까지 아니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추울 것으로 보여 옷차림을 든든히 해야한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0도 내외에 머물러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험실 입실 자체가 안된다.

교육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0, KF80 등)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밸브형 마스크와 방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 유증상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은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마스크 여분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시험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와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 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 시험실에서,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발열검사를 거쳐 37.5도 이상이거나 심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시험 도중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수험생도 유증상으로 분류되고, 시험 전날 체온이 높게 나온 수험생은 종합병원장 등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시험 당일 제출하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별도시험장은 광주 2개·전남 7개, 병원 시험장은 광주 1개·전남 3개가 마련됐다.

수험생 책상 앞에는 가로 60cm, 세로 45cm 크기의 가림막이 설치됐다. 빛 반사가 최소화하도록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졌다.

또 시험장에는 핸드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

와 스마트폰, 플러스펜, 시각 표시 외 기능이 있는 시계, 기립종이 등은 반입할 수 없으며 소지 시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이후에는 반입 금지 물품들을 단순 소지한 것만 확인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밖에 4교시 탐구영역에서 한국사는 전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본인 응시과목 외의 다른 시험지를 열람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주의해야 한다.

수능 응시자는 광주의 경우 총 1만 6378명으로 전년(1만8353명)보다 2.2% 줄었다. 전남도 총 1만 4208명으로 전년(1만5993명)보다 11.2% 감소했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수능 담당 장학사는 "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수능이 치러지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들이 차질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시험실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일한다.

사시 33회로 판사 출신인 이 내정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고 2013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에서 활동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대표적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거론돼왔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하루 앞둔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

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론 관계자는 "이번 차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오는 4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그대로 집행한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32조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제정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징계위의 결정에 대한 재가 행위는 일종의 '귀속 결정'인 탓에 대통령의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이 징계 무효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베를린 소녀상' 철거 없이 영구 존치 ▶8면

장성군 청년정책 돋보이네 ▶11면

新 팔도명물-경기도 안성 포도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고함 고함 세상이 눈이 뜨기 전  
빛이 세게 들어오기 전에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9세 성인 여성 (시험) 2019.09.16~10.17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주관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